

## 체르노빌, 그리고 고향, 뷔 파인더 안에 담다.

## 사진가 정 성 태 인터뷰

글/사진 최기원 기자 photg77@naver.com



"낯선 도시를 향해 무작정 걸을 나섰다. 30년 전 잊어버린 나의 기억을 찾기 위함이었다. 지금히 개인적인 일상으로 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인 사건의 모호한 경계에 섰을 때, 나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사진작가의 노트에서 그는 그곳을 이렇게 말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옛 고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사람이 살았았다는 사실만 남았을 뿐, 그 어느 곳도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재앙이 지나간 장소. 그리고 누구나 그 장소의 이름만 들으면 절대 다시 일어나거나 안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바로 '체르노빌(Chernobyl)'이다.

지난 2016년 10월 17일, 정성태 사진작가는 체르노빌에 다녀온 그곳의 기록들을 가지고 북 쪽에 위치한 NaMu Modern & Contemporary Art Gallery(약칭 : 나무컨템포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사진들은 폐허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의 실상을 전진하면서 묵직한 아름다움을 기진, 그러나 그 상흔 만큼은 크다는 것을 알게做的 이미지를 선보였다. 사진을 보다보니 그 밖의 이야기들이 궁금해졌다. 어떻게 해서 작가는 이러한 사진을 찍었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대했을 때의 감상들이 궁금했다.

작가와 인터뷰를 약속하고 며칠 후 만남을 가졌다.

인터뷰를 시작하고 그에게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어떤 작가들이나.. 물론 사진가들에게만 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미친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꿀연과 우연을 수반하게 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출처 등을 수집해가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은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영상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시리즈도 그 과정 중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을 말을 이어갔다. 이건 개인사이긴 하지만, 어릴 적 저는 '아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체르노빌이 어떤 곳인지..."

모를 리가 있나.. 불행의 상징.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그것을 증명한 정조. 그곳이 체르노빌이 아닌가. 한 때 우크라이나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도시가 부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 물질이 도시 전체로 퍼지면서 순식간의 그 도시(Pripyat)에는 사람 이 살 수 없는 죽은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체르노빌 사태'라 알고 있다.

그러다 작가는 잠시 말을 잃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걸 보고는 부친께 사달라고 줄렀는데 유달리 카메라만은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이후에도 카메라를 가지고 싶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저의 머리 속에 계속 남았나 봅니다. 결국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카메라를 사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작가는 웃었다. 사실 본 기자 역시 작가와 비슷한 이유로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도 유연이라고 해야 할까.

"혹시 기자님은 사진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홀음을 그렇다고 대답했다.

체르노빌이 피폐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지 비를 맞는 다거나 그곳 물건에 손대는 것을 금

한다고 했다. 더불어 작가는 사진가로서의 삶, 아니면 자신에게 있어서의 개인적인 사명으로 인해 그곳에 항행했다고 했다.

작자는 그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았나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벽지와 물질이 퍼져 있었을 것 같은데.." 그라자 그는,

"당연히 겁이 났죠. 처음에 갔을 때는 체르노빌 현지 가이드와 함께 다녔는데, 혹시 방사능이 물이 얼마나 많은가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찍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귀국해서 사진을 보고 크리틱을 받아보니 모두 입을 모아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지 떨니까. 하하.."

작자는 속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당연한 걸과 있어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두려움은 마음 때문에 첫 사진을 그렇게 마친 것이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다시 그 곳을 찾았을 때는 좀 더 대범하게 활영을 했죠. 가기 전에 혹시라도 도를 일에 대비해서 사진 개인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걸었는데 허용치 이상의 방사성이 감지되는 지역에 도달하자마자 반응을 보이면서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하지만

사진을 찍어야 하니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깊숙히 들어가서 활영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두 번째 같은 실수를 하긴 싫었어요."

그의 말을 통해 그가 얼마나 사진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어찌면 그가 사진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

옛날 로보카 카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 사물, 사건, 그 어떤 것인가 자체해 알고 광감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서터를 눌러야 한다."

"나는 사진가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찍은 이유를 물어보면 환상적인 단어, 문법 등을 이용해 설명해주곤 하지만, 명백히 '그것'에 대해 깊이 이해한 이는 적다. 절차 역시 반성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좋은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굿이미지 필립법'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작자는 작업노트에서 말한 바로,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더는 비를 맞지 못하고 다녔던 모든 기억이 체르노빌에 살고 있는 사모셀로(Samosely): 체르노빌에 무단 기주하는 자기정착민)에게 투사되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그들을 대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제가 활영하면서 그곳 자가 정착민(Samosely)들을 만나뵈었죠. 처음에는 사진 찍기를 거부하셨는데, 계속 체르노빌을 방문할 때마다 찾아뵙니까 나중에는 반갑게 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분들이 시는 집을 방문했을 때 맨 소련의 물건들과 함께 그 시대를 살기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 러면서 느껴진 것은.."

그는 또 다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묘하게 그곳에서 느껴진 것이 다른 저의 고향에 대한 앙수이었죠. 타자에서 느껴지는 고향은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작자는 그 기분에 대해 물었다.

"이번 작업 전체에 작가님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투영되었던 것인가요?"

"아이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계속 깃들여져 갔겠죠. 일부러 의도한 것도 아닌 순수하게 제가 그人たち에게 치워줬죠. 참 신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우연성이 수반된 것 같아서 하나라고 볼 수 있겠더라구요. 아니, 어쩌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수도 있었구요."

작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 작업을 통해 많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 '적극성'이란 진심으로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다음으로는 '교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울림같은 것 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한걸음은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자의 말처럼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대상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사실 이것들을 실천하기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그는 이 일을 해나갈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러한 점을 다시 상기 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의 세상을 보는 영민함과 깊이 있는 작품을 보여준 특별함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돌아와 글을 정리해 간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진가'로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록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기록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며,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 글을 떠는 '사진을 찍는 사람'의 자세를 다시 일깨워준 그에게 한 번 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여지길 빌며..

## 정 성 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출업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영상학과 석사과정 졸업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영상학과 박사과정 졸업

## 개인전

2006 Picturesque Angkor, 대안공간 Space129  
2007 얼굴Typology, 대안공간 쪽  
2009 빛의 하루展, KBS대구  
2010 회귀, Space Gachang  
2012 짚은 그림자, 수화방  
2016 Breath in Chernobyl, Shcherbenko Art Centre, Kiev  
2016 Chernobyl-쇠잔한 아름다움, NaMu modern&contemporary, Seoul

## 수상

2008 제4회 2030청년작기상 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대구시민화박초대 기획공모전 당선, 대구시시설관리공단  
2013 대구의 젊은 예술인, 대구예술, 한국예술총대구광역시연합회



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많은 것을 환기시키면서 자가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고백했다.

인터뷰가 이제 막바지를 향했다. 내심 미지막 질문을 하자니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혼자 좋다고 하는 질문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가님과 같이 다큐멘터리적인 사진에 품을 꾸고 있고, 작가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과 후배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는 잠시 속스러운 듯 머뭇거렸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딱히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진은 자신이 놀고 있는 일이지만, 사진이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우선 '관찰' 이죠. 관찰하기 위해서는

## 포토저널 작가양성 프로그램 개설

## 전시기획

촬영에서 전시까지,  
개인전을 위한 모든 것!

포토저널  
Archive / 강의실

## 지도·김강수 (전시기획 코디네이터)

## 개인전 기획 작품분석 이제는 필수

## • 지도내용

- 작품분석
- Archive(오리지널 작품제작)
- 공간연출(전시 Display)
- 전시홍보방법(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방법, 마케팅)

자세한 내용은 포토저널 전시기획사업부로  
상담 요청하시면 기초상당이 가능합니다.

장소 : 포토저널 본사 Archive실  
문의 : 포토저널 전시기획사업부  
02) 2278-7766-7